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 추월
- 이 슈 : (경제)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산업)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실버 경제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세 심 록 : 도사가 되면 좋은 점
- 복 리 뷰 : 기계와의 경쟁

□ 동향

○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를 추월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415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실질소득 기준 1.1% 증가)
 -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4.1%)이, 임대소득 증가로 사업소득(0.7%)이 증가
 - 재산소득(-10.8%), 비경상소득(-0.4%), 이전소득(-0.1%)은 감소
- (월평균 소비지출) 247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실질소비지출 기준 1.5% 증가)
 - 교통(5.9%), 음식·숙박(4.9%), 기타상품·서비스(6.1%), 보건(6.5%) 등의 지출 증가에 기인
 - 전년예 비해 연료비 지출이 감소한 주거·수도·광열(-1.1%)과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로 통신비(-5.8%) 등의 지출은 감소

○ ECB 추가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글로벌 금리의 하락압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ECB 추가완화정책 기대로 유로존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하락세 시현
 - 8월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ECB 드라기 총재가 중기적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표명
 - 유로존 주요 국채금리는 ECB의 추가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가능성 등을 선반영하여 사상 최저치를 경신
- ECB 추가 양적완화정책 기대감은 미국의 신중한 출구전략과 함께 한동안 글로벌 금리의 상승압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시중금리도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통화정책 등으로 하락압력이 강화될 가능성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8/14	8/29	
실물 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0.6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0.1	1.8	0.6	0.3	-2.3	0.4	-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4	1.1	1.1	1.6	1.7	1.7	1.6		-
	실업률(%)	3.2	3.1	3.0	2.8	4.0	3.7	3.6	3.5	3.4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241.3	71	79	-		
금융 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2	2.84	2.75	2.75	2.52	2.55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29.6	1,025.0	1,019.4	1,019.4	1,032.0	1,019.2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93.2	1,994.1	1,995.1	1,995.1	2,055.5	2,064.6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8/18~8/29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¹⁾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는 한류(Korean Wave, Hallyu)가 전파되면서 최근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및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류가 1.0과 2.0시대를 넘어 진화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드라마를 필두로 촉발된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중~후반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K-Pop 열풍으로 인해 한류 2.0시대로 진화하였다. 일부 콘텐츠 및 국가를 중심으로 촉발된 한류 현상은 1.0과 2.0시대를 넘어 현재는 한류 3.0 시대의 개막을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한류가 확산, 진행됨에 따라 국내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이와 연관된 대중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한류 현상은 문화 콘텐츠 소비 효과를 넘어 한국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소비 확대 및 한국에 대한 투자 수요를 유발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류 현상의 국내 경제적 효과를 소비재 수출,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류 현상은 한국 제품 및 관광 서비스 수요를 유발하고 나아가 한류 관련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최근 소비재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소비재 수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3년 아시아 지역의 소비재 수출은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26.2%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한류 현상이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행 수입액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아시아에서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약 980만 명으로 2003년 70.7%, 2005년 73.7%, 2013년 80.9%로 규모 및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여행 수입액 역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의 여행수입이 2007년 약 33억 달러에서 2012년 약 97억 달러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14-33호 (2014. 08. 22) 재구성.

로 약 3배 급증하였다. 이처럼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한류 현상이 방한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2년 16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이 과반 이상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FDI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관광 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의 서비스업 FDI는 2001년 약 2억 달러에서 2013년 14억 달러로 약 7배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한류 현상이 외국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류 현상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1995~2012년 196개국의 연간 패널데이터를 통해 패널 토빗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한류 현상은 시차를 두고 소비재 수출, 관광객 유치 및 투자 견인 효과를 유발하였다. 우선 한류 현상은 당해 연도 소비재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즉시 제고시켜 당해 연도 한국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류 현상은 다음 연도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다. 이는 재화 소비와 달리 관광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다음 연도의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류 현상은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서비스업 FDI 유치에도 기여한다. 이는 한류 현상으로 인한 방한 관광객 증가가 관광 등 국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자본 유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류가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첫째, 한류의 확산진화를 통해 한류 3.0 시대를 본격화해야 한다. 둘째, 한류 현상을 제조업 수출과 연계하여 한국의 브랜드 및 제품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셋째,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한류 현상을 관광 수요 촉진과 연계해야 한다. 넷째, 한류 현상의 경제적 효과를 국내 투자 유치 홍보 내용에 포함하여 해외 투자 유치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 이슈 : (산업)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²⁾

일반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이란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지닌 외국인력'을 지칭하며 본 고에서는 전문취업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잠재적인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주목받는 유학생까지 포함한 '외국 인재'가 분석 대상이다.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9년 20,745명에서 2013년 30,370명으로 연평균 10.0%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의 전문직 종사자가 동기간 9,155명에서 17,2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지도 부문 종사자는 4,299명에서 5,827명으로, 기타 외국인 전문인력은 55명에서 1,53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자는 7,291명에서 5,750명으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7,127명에서 23,644명으로, 여성이 3,618명에서 6,726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 출신이 13,401명에서 21,774명으로 증가해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의 71.7%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선진국(북미·유럽) 출신이 7,363명, 그 외 지역(남미·오세아니아·아프리카) 출신이 1,233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잠재인력은 2009년 57,244명에서 2013년 61,119명으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유학생의 경우 57,244명에서 49,762명으로 감소했으며, 구직을 위해 단기(6개월 이내) 체류하는 구직자는 1명에서 11,357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27,617명에서 28,664명으로, 여성이 29,628명에서 32,455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13년 기준 57,809명, 전체 잠재인력의 94.6%를 차지하며, 선진국 출신이 2.6%, 그 외 지역 출신이 2.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인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전문인력의 규모가 협소하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규모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규모나, 내국인 전문인력 규모, 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전문인력+일반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OECD평균(38.1%)이나, 미국(7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전체(내국인+외국인) 전문인력 중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중도 2013년 기준 2.1%로 OECD평균(8.6%), 미국(11.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둘째, 외국인 전문인력은 단기 체류하는 경향이 높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체류기간이 짧고, 체류기간 만료 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전문인력

²⁾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14-31호 (2014. 08. 25) 재구성.

중 3년 미만 체류하는 비중이 66.2%(전체 외국인 평균 47.4%)로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30%가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예정이며,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도 91.1%가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전문취업 외국인 규모가 2009년 3,846명에서 2013년 8,44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문취업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28.6%에서 34.3%로 확대되었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일본인 투자자가 1,773명(비중 24.3%)에서 2,386명(41.5%)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부동산 투자자 제외)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연평균 5.8%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동기간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연간 27,082명에서 42,409명으로 증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잠재인력(유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 유학생 규모는 2009년 57,244명에서 2013년 49,76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4.3배에서 2.0배로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미국에서 신규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331,981건에서 534,998건으로 증가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 대비 전문인력 비자 발급 건수 비율이 2.8배에서 3.2배로 증가했다. 유럽(주요 10개국 기준)은 신규 발급된 유학생 체류허가도 59,727건에서 81,137명으로 증가해 동 비율이 3~4배 수준을 유지하였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지도 부문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선진 직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잠재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고, 유학생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 외국인 전문인력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인재 교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풀(pool)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전문인력의 정주화를 장려하기 위해 체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전해영 선임연구원(2072-6241, haloween@hri.co.kr)

□ 테마 : 실버 경제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³⁾

○ 요약

'실버 경제'란,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등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음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버 경제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령층이 최대 소비자로 부상하고 소비 확대를 주도하면서 독일의 총 소비 중 고령 가구의 비중도 2010년 32%에서 2030년 42%로 10%p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다음으로 고령친화 제품이 확산되고 고령 기술(Gerontechnology)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제품 포장 변화부터 새로운 상품 개발까지 고령자들의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이오·로봇 등 새로운 실버 시장도 생겨남. 또한, 원격 의료, 스마트 홈 등 고령관련 서비스업도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임

또한, 고령 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식되어 R&D 투자가 늘어나는데 독일 정부는 고령화를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전략 2020'에 기반을 두어 매년 3~4억 유로(약 4,200~5,600억원)를 고령관련 R&D에 지원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고령관련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로 독일의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1991년 295만명에서 2011년 461만명으로 165만명 증가해 고용 창출력이 매우 높았음

한국도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실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이를 위해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고령친화 제조업 지원 강화, 고령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특화된 고령관련 R&D 지원 및 고령관련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체계와 자격시스템을 구축 등이 요구됨

□ 실버 경제(Silver Economy)의 대두

○ 최근 유럽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신 시장 창출, 이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 고령화를 신성장동력으로 보는 '실버 경제'에 주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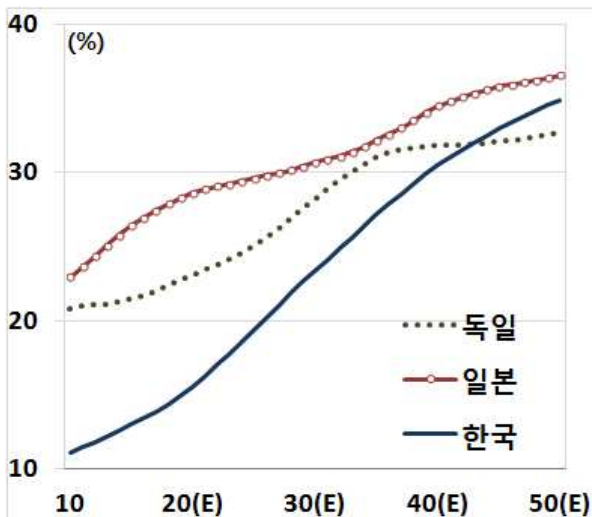
- (정의) 실버 경제(Silver Economy)란,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임⁴⁾

³⁾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실버경제의 기회요인과 시사점” 14-27호 (2014. 07. 09) 재구성.

⁴⁾ 실버 경제는 2005년 독일 본(Bonn)에서 유럽의 삶의 질,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

- 실버 경제는 고령자를 단지 복지 공급의 대상만이 아닌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제품,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신시장도 창출
 - 보스턴 컨설팅, 액센츄어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과 다수의 연구자들도 '실버 경제'를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⁵⁾하고 있음
- (실버 경제의 확산) EU는 실버 경제를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회원국들에게 제안했고 각 국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실버 경제의 선두 주자, 독일)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고령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실버 경제에 가장 적극적임
 - 독일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경에는 33%에 달하며 EU 전체적으로도 고령자는 2010년 1.2억 명에서 2050년 1.9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Oxford Economics는 독일이 실버 경제 구현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GDP성장률을 연평균 0.2%p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추정
-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이나 고령화를 위협요인으로만 바라보고 수요 측면의 기회 요인은 간과되고 있는 바, 독일이 고령화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실버 경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함

< 한국의 고령화률(65세 이상 인구/총인구) >



자료: UN, 현대경제연구원.

< 고령화에 대한 시각차 >

	위험 요인으로서 시각	기회 요인으로서 시각
고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관련 신규 일자리 증가
소비	소비 위축	고령 연령별로 다양한 소비 증대
정부	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여력 약화	소비 세수 확대
투자	투자 감소	고령 기술 등 신기술 투자
기업	생산성 하락	고령친화 제품·서비스의 신시장 창출
성장 잠재력	약화	확대

자료: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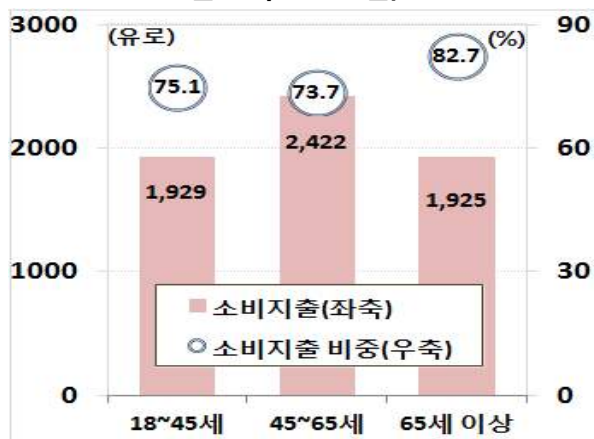
⁵⁾ Boston Consulting(2011), Global Aging- How companies can adapt to the new reality?.
Accenture(2011), New waves of Growth-Unlocking opportunity in the multipolar world. 외.

□ 독일 실버 경제의 내용

○ (고령자가 소비 시장 주도) 소비 성향이 높은 고령층이 최대 소비자가 되고 소비 확대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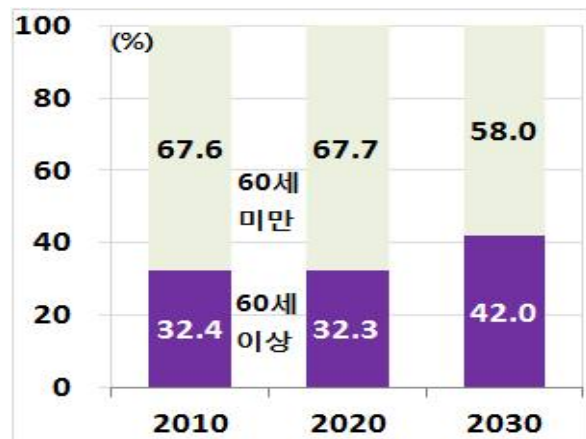
-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0년 20% 수준에서 2050년 33%로 확대
 - UN 인구 추계에 따르면 독일은 총 인구 감소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1,650만명에서 2050년 2,290만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1/3을 차지하게 됨
- 독일에서 고령자들은 소득 중 소비지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청·장년층⁶⁾ 대비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남
 - 독일의 연령별 소비 지출액을 보면 2012년 기준 65세 이상은 평균 1,925 유로로 45~65세의 2,422 유로 보다는 적지만, 18~45세 이하의 1,929 유로와는 비슷함
 - 이에 순소득 중 소비지출 비중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82.7%로 18~45세의 75.1%, 45~65세 이하의 73.7%보다 높았음
- 고령층이 최대 소비자로 부상하면서 총 소비 중 고령 가구의 소비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30년까지 42%로 상승
 -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한 독일 가구의 소비 비중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가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2.4%에서 2030년 42.0%로 약 10%p 증가되지만 60세 이하 가구는 동기간 67.6%에서 58.0%로 감소
 - 특히, 고령자의 부분별 소비지출 비중은 주거 및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고 식료품, 건강, 여가 생활 등에 대한 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함

< 독일 연령별 소비성향 (소비지출 /순소득, 2012년) >



자료: 독일 통계청.

< 독일 연령별 가구의 총소비 비중 >



자료: NEUJOBS, 'Modelling Economic Potential of Silver Economy', 2013.

6) 인구는 대표적으로 18~35세 에코 부머, 36~47세의 X세대를 청장년층, 48~66세의 베이비부머는 장년층,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구분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 가능여부에 따라 18~45세(금융자산은 16~45세), 45~65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비교하였음.

○ (고령친화 제조업 확산) 고령친화 제품이 확산되고 바이오·로봇 등 고령 기술에 기반을 둔 실버 시장이 발달

- 고령친화 제조업은 노인 요양 용품뿐만 아니라 음식료에서 의류, 가전, 자동차 등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모든 제품을 포괄
 - 실버시장⁷⁾은 독립된 산업이기 보다는 다수의 산업과 연관된 교차 시장 (Cross-Section Market)으로 기존 제품들에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하여 보다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변화
 - 즉, 기존 제품의 포장을 변화부터 가구, 가전 등은 고령자의 사용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고령자를 위한 식품, 화장품이 개발되는 등 제조업의 전 부문에 적용
 - 예를 들어, 필립스의 치매환자들을 위한 전구, Biozen의 음식을 잘 삼킬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푸드젯 3D' 프린터기, 티센크루프의 고령자를 위한 계단 승강기 등 기업들은 기존 제품을 고령 친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또한, 바이오·로봇 등 고령 기술(Gerontechnology)을 활용하는 새로운 실버 시장도 확대
 - 독일 바이오 시장의 약 48%는 의료 분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체외에서 만들어진 세포, 조직 등을 이용하는 재생 의료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은 고령자에게 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로봇(Care-O-Bot)'의 상용화도 앞두고 있음⁸⁾

< 고령친화 제조업 적용 분야 >

구분	제조 분야
디자인 및 성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산업 ▪ 가구와 주방도구 ▪ 가전 산업 외
고령자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맞춤형 식품 ▪ 안티 에이징 화장품 ▪ 고령자용 이동 수단 외
융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자동차 등과 ICT 간 결합: 위치전달 및 건강상태 체크
신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산업 ▪ 바이오 및 맞춤형 의·약학

< 고령친화 제품 개발 사례 >

구분	기업 예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zen, 푸드젯 3D프린터: 고령자 맞춤형 음식물 제작 ▪ GTX 운동화: GPS시스템을 달아 치매 환자 등의 위치 파악 ▪ 필립스, '다이나믹 전구': 치매환자 치료와 거주에 적합 ▪ 티센크루프의 계단승강기: 고령자 집안 계단 이동용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운호퍼의 '케어 로봇': 고령자용 생활보조로봇

자료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

자료 : 보도자료 참고.

7) 독일의 실버시장은 고령자 요양 관련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고령자 편의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IT, 로봇, 교육 및 금융 등 총 1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P. Enste, G. Naegele, V. Leve,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Silver Market in Germany, p.325~339 [in:] F. Kohlbacher, C. Herstatt, The Silver Market Phenomenon-Business Opportunities in an Era of Demographic Change, 2008.

8)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감성을 인식하는 가정용 로봇 페퍼를 2015년 상반기 시판 예정임.

○ (고령관련 서비스업 발달) 원격 의료, 스마트 홈, 서드 에이지 교육⁹⁾ 등 고령관련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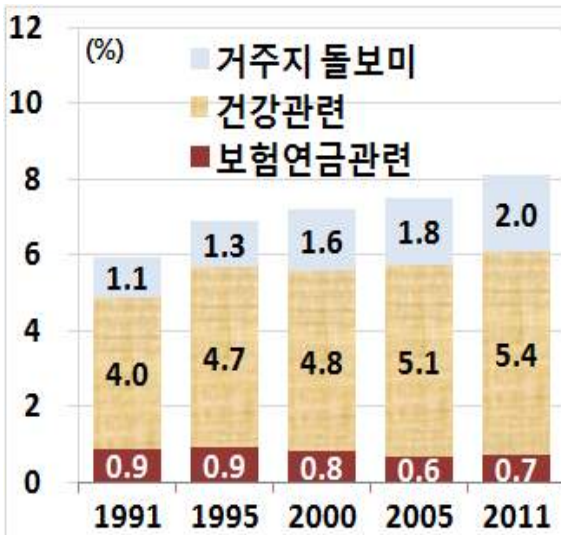
- 고령관련 서비스업¹⁰⁾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

- 독일은 고령친화산업으로 구분되는 보험·연금관련, 건강, 거주지 돌보미 등¹¹⁾ 고령관련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6.0%(부가가치 기준임)에서 2011년 8.1%로 증가
- 특히, 건강 관련(Human Health Activities) 서비스업 비중은 1991년 4.0%에서 2011년 5.4%로 늘었고, 거주지 돌보미 등도 동기간 1.1%에서 2.0%로 증가

- 최근에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환경 개선, 주거·의료와 ICT 간 융합, 서드 에이지 (Third Age) 교육 등 관련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 주거, 원격 의료 등 고령자의 삶과 건강 상태를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T와 융합이 확산되면서 독일의 의료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유로에서 연간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외에도 은퇴자에 특화된 교육, 금융, 레저 시장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독일의 고령관련 유망 서비스업의 비중>



자료: Eurostat, 현대경제연구원.
주: 부가가치 기준임.

<고령친화 서비스 개발 사례>

구분	기업 예
서비스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이저 슈퍼마켓: 쇼핑카드, 상품 진열 선반 등에 돌보기와 응급벨 설치 올덴버그 주립저축은행: 계단 제거, 근접 주차 등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홈: Sensfloor, Sen@home eHealth: 텔레메디슨 등 원격의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드 에이지 교육: 울름(Ulm) 대학 등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lianz 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분야를 변경하는 펀드조성

자료: 보도자료 참고.
주: Sensfloor, Sen@home은 주택 내 고령자의 움직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

9) 서드 에이지는 제 3의 연령으로 중년과 노년 사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일컫음.

10)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령친화 산업 분류는 없지만, 금융, 여가, 요양(보건의료 포함) 분야는 필수적인 산업 분류에 포함되며 그 외에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이 포함됨. 국가별로는 일본이 1994년 후생노동성에서 고령친화 산업을 개호서비스, 복지기기, 금융, 의료, 레저, 주거, 일상 관련의 7가지 분류로 구분했고, 미국은 노인복지법(1965년)에 따라 요양, 금융, 여가로 프랑스는 고령친화산업을 소득, 보건·의료, 여가문화 및 주거로 구분.

11) 독일은 실버 시장을 일반 제조업부터 ICT, 문화여가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계정상에서 고령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만으로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바, 보험연금, 건강관리 및 거주지 돌보미만으로 추정.

○ (고령 기술의 첨단화) 독일은 의료,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고령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 독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과제를 '고령자의 새로운 미래'로 설정하고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이미지 재구축과 활용에 대해 연구를 확대
 - 고령화 연구는 고령자의 경험과 숙련도 활용, 고령자의 건강 유지, 사회적 통합 및 안전하고 독립적 삶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됨
 - 특히,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기술과 관련된 53개 프로젝트에 총 8,700만 유로(약 1,220억 원)를 지원하였음
- 독일은 고령관련 기술을 첨단기술로 인식하고 R&D 지원을 확대
 - 독일 연방정부는 고령화를 경제의 기회요인(Wirtschaftsfactor Alter)으로 인식하고 매년 3~4억 유로를 고령관련 R&D에 체계적으로 지원
 - 주요 분야는 50세 이상을 위한 제품 개발, 의·약학 분야, 고령자의 독립적 삶 지원을 위한 ICT 서비스, 원격 의료 등임
- 또한, EU의 고령화 지원 R&D 프로그램¹²⁾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EU는 2007~2013년까지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6억 유로 규모의 AAL(Ambient Assisted Living)¹³⁾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2013~2020년까지 AAL2(Active Assisted Living 2)에 총 7억 유로(약 9,800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

< 독일정부의 고령 연구과제 >

구 분	내 용
주 제	▪ 고령자의 새로운 미래
주요이슈	▪ 고령자의 경험 및 숙련 활용 ▪ 고령자 건강 유지 ▪ 고령자의 사회적 통합 ▪ 고령자의 안전한 독립적 삶 유지
연구지원	▪ AAL(Ambient Assisted Living) 기술
지원규모	▪ 53개 프로젝트, 8,700만 유로
연구분야	▪ 고령자의 기존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 고령자 돌보미 관련 기술 ▪ 고령자의 이동편의 향상 기술 등

자료: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 독일정부의 고령관련 R&D 지원 >

구 분	내 용
기 간	2012~2015
규 모	3~4억 유로 (약 4,200~5,600억원)
기 반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분야 중 건강·식량)
프로젝트	▪ 맞춤형 의료를 통한 치료 향상 ▪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 고령자의 독립적 삶 구현
실행계획	▪ 바이오, 게놈 등 맞춤형 의료 ▪ 노령화 연구 ▪ 고령관련 기술연구(Gerontechnology)

자료: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12) P.12 첨부 1. 참조.

13) AAL은 총 19개 유럽 국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참여했는데 적어도 각 프로젝트에는 3개국 이상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요구됨. AAL은 유럽의 산업과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여 유럽의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고령관련 일자리 창출 확대) 고령관련 제조 및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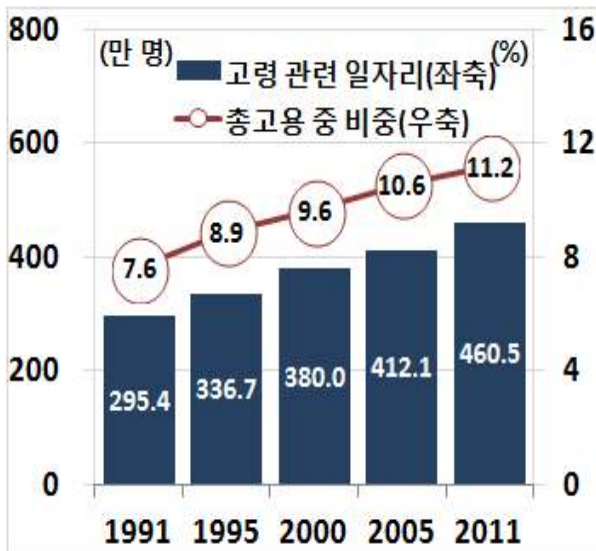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은 매우 높았음

-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1991년 295.4만개에서 2011년 460.5만개로 165만개 증가하였음
- 특히, 총 고용의 연평균 증가율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0.4%에 그친 반면 건강 관련 1.8%, 거주지 돌보미 등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2% 증가하여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은 높았음

- 독일은 실버 경제의 구현을 통해 약 1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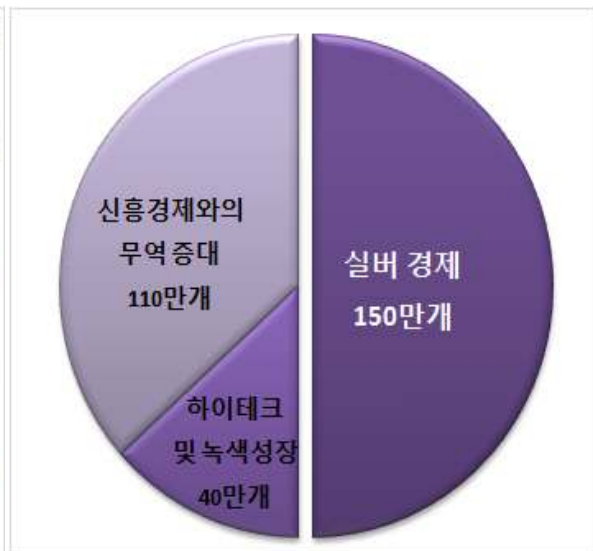
- Oxford Economics는 독일이 실버 경제 등 신성장동력을 활용할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0만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함¹⁴⁾. 신성장동력별로 실버 경제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약 150만개로 약 50%를 차지함
- 특히 독일에서는 2010년 기준 약 240만명의 간호 인력이 일하고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2030년까지 약 100만명이 증가된 340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독일의 고령 서비스 일자리 추이 >



자료: Eurostat, 현대경제연구원.

< 독일 신성장동력별 일자리 창출 추정(2010~2020년 일자리 창출 규모) >



자료: Oxford Economics.

¹⁴⁾ Oxford Economics는 독일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의 성장 궤도를 유지할 경우 고용이 1% 증가하지만 실버 경제 등 신성장 동력이 확산되면 고용이 8% 증가(약 300만개 일자리 추가)할 수 있다고 전망.

□ 시사점

- 한국도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실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첫째, 고령자 소비 시장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 보장을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 고령자들이 소비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은퇴 후 소득 보전,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고 고령친화 일자리의 꾸준한 발굴과 고령 전문 인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고용 환경 구축 등이 필요
- 또한,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정 은퇴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도 필요함

둘째, 해외 실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고령친화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 국내외 고령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고령친화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세계 실버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국내 내수시장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고령자에게 특화된 건강 및 의료, 교육, 레저, 금융 등의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주거·교육과 ICT 간 결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넷째, 고령화에 특화된 R&D 펀딩을 조성하고 일본, 독일 등과 고령관련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 정부 R&D 자금의 일정 부분을 고령관련 R&D에 특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선진화 시켜야 하고 일본, 독일 등 고령관련 기술 선진국들과도 R&D 협력을 강화해야 함

다섯째, 고령관련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체계 및 자격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 독일과 같이 고령자 케어 인력들이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 케어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등을 강화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 세심록(洗心錄)

○ 도사가 되면 좋은 점

매주 분당의 한 노인복지관에 70대 전후의 노인 예닐곱 명이 모인다. 어린 손주만한 인형들의 옷매무새를 만지다가 인형 얼굴을 보고 함박웃음을 짓는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있을 공연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흥분된다. 이 노인들은 시니어 인형극단『그랜드 파파마마』의 단원들이다. 『그랜드 파파마마』는 인형극을 통해 인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노인들에게 전문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방식으로 노년기 여가활용의 긍정적 모델로 손꼽힌다. 작은 인형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아가라!』는 경기도 광명의 이름난 노인 댄스 동아리이다. 외부 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행사의 축하 공연에 초청을 받고 아이들에게 댄스 교육 봉사활동도 한다. 하지만 원하는 노인 모두가『나이아가라!』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 까다롭게 정해진 훈련기간을 마쳐야만 가능하다.『나이아가라!』는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생활의 즐거움과 몸의 활력을 높여 노인의 생산적,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한다. 관내 초등학생과 특수 장애청소년들에게 스포츠댄스를 지도하는 강사로서 당당히 경제활동도 한다. 봉사하면서 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 물론이다.

『그랜드 파파마마』와 『나이아가라!』는 노인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¹⁵⁾ 활동의 예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이들 노인의 절반이 TV 앞에서 하루 일과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엔 대략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길고 긴 여가시간과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그랜드 파파, 그랜드 마마,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 아이작 뉴턴(1642-1727)

3) 캐나다 켈거리 대 여가학자인 로버트 스테빈스(R. Stebbins) 교수가 1970년 처음 사용한 여가의 개념으로, TV시청, 낮잠, 술 마시기, 수다 떨기 등과 같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여가임. 취미애호가 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추구되는 실질적이고, 흥미롭고, 성취적인 행동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것임.

□ 북 리뷰 : 기계와의 경쟁¹⁶⁾

에린 브린올프슨은 1987년 전자시장 이론을 세계 최초로 제기한 정지상거래 및 경영정보학의 최고학자로 평가받으며,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이자 MIT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소 이사로 활동 중임

○ 주요 내용

- **지금의 경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주지 못함**
 - 미국 정부가 2009년 6월 금융위기를 공식 종료했고, 곁에 회복세, 기업 실적 및 투자도 확대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고용은 늘지 않고 있음
 - 그 동안 일자리 감소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었던 경제 순환성, 혁신 능력 침체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고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함

- **기계 및 컴퓨터의 발달은 이미 체스판의 후반부에 들어서고 있음**
 - 운전, 복잡한 소통 등 다양한 판단 능력과 직관이 필요해 인간의 영역으로 믿어져 왔던 부분까지도 컴퓨터가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음
 - 인텔의 공동창업자 고든 무어는 컴퓨터 하드웨어 속도가 12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는데 실제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비슷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체스판의 후반부¹⁷⁾에 들어서고 있음
 - 다만, 발전 속도가 느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 육체노동(간호사, 배관공), 창의성(작곡, 소설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 분야 등은 여전히 인간이 앞서 있음

- **기계와의 경주에서 패하면서 중간 기량의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감**
 - 고숙련, 슈퍼스타,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저숙련, 기타 일반인, 노동자와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실제로 생산성의 꾸준한 증가에도 최근 10년 사이 미국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6만 746달러에서 5만 5,821달러로 하락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 고급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현상 유지, 가장 낮은 기량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중간 수준의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이들이 양극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음

- **기계와 대항이 아닌 경주할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함**
 - 먼저 중간 수준 근로자가 도태되지 않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함
 - 모든 사람이 생산적으로 경제에 기여하고 기술적 실업과 소득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 기업가 정신, 투자 및 법·규제 그리고 세금 부문의 개선이 필요함

16) 에릭 브린올프슨 외 지음, 정지훈 외 옮김, “기계와의 경쟁(Race against the machine)”, 퇴음, 2013.11.

17) 체스판의 첫 칸에 쌀을 한 톨부터 2배씩 증가시켜 마지막 칸에 이르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짐. 이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속도가 2배씩 증가할 경우 체스판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 발전 속도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게 됨을 일컬음.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버트랜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